

폴 길렌

Paul Geelen

폴 길렌(1983년생)은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네덜란드 예술가다. 사물, 원재료, 동물 잔여물, 퍼포먼스, 사운드로 구성된 그의 조각과 공간에 개입하는 방식은 신화에 대한 근원적이고 응용적인 연구와 우리 시대의 불안정한 발전 과정에 대한 추상으로 가장 잘 표현된다. 그의 전시는 애니미즘적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소실점 역할을 한다.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전이를 이끌어내는 매개체로서 신체를 활용한다는 점을 무시하거나 피할 수 없기에, 그것의 물질성은 공유해야 할 공간의 관능성과 취약성 모두를 포함한다. 창동레지던시 입주기간 동안에는 굿과 같은 무속 의식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엽적인 것과 무한한 것, 개인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연결하였다.

Paul Geelen (b. 1983) is a Dutch artist based in Amsterdam. Consisting of object, raw material, animal residue, performance, and sound, his sculptural practice and spatial interventions can best be read as a fundamental and applied research into the mythologies, and abstractions of precarious evolutionary processes in our time. His exhibitions act as vanishing points that induce an animistic attitude. As this body-to-body medium (of an immediate and physical transfer) is difficult to neglect or avoid, its materiality contains both the sensuality and fragility of a space to be shared. The approach towards his residency at MMCA Residency Changdong placed its emphasis on gut (shamanistic rituals) and others, in an attempt to connect the local with the infinite—the personal with the universe.

칼날을 타는 법: 연결하기의 기술

서지은(코리안미술관 학예팀장)

2023년 5월 어느 날, 암스테르담으로의 이동을 앞두고 런던에 방문 중이었던 나는 창동레지던시에 입주 중인 네덜란드 출신의 작가 폴 길렌과의 매칭 제안에 대한 이메일을 열어보게 되었다. 의미 있는 우연이었고, 참으로 흥미로운 타이밍이자 연결고리라고 생각했다. 길렌과 이메일로 먼저 인사를 나누고, 나는 그의 나라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귀국해 창동레지던시의 오픈스튜디오 기간 작가와 첫 만남을 가졌다.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폴 길렌은 심도있는 리서치를 근간으로 오브제, 원재료, 동물의 잔여물, 퍼포먼스,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조각적 실천과 공간적 개입을 선보여 왔다. 특히, 그는 10년 이상 달팽이와 연관된 작업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다. 그의 스튜디오에는 그가 한국에서의 리서치 중 찾은 다양한 사진, 서적, 그리고 오브제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그가 키우고 있던 생명체인 달팽이 한 마리까지. 그는 코로나19 이후, 레지던시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고 했다. 예술가로서의 인식과 관점의 확장을 위해 한국에서의 한정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그에게서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레지던시를 마치고 네덜란드로 돌아간 길렌은 한국에 머물며 진행한 일련의 활동을 압축적으로 “비물리적 거리를 연결하는 일(bridging intangible distance)”에 관한 것이었다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그의 작업은 지엽적인 것과 광범위한 것, 개인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물질과 비물질, 이성과 감성 사이를 횡단하는 일이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었던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었던 여러 상황들을 돌파하고자 새로운 세계에서 자유와 도전을 경험하고자 한 작가의 시도이기도 했다. 이 글은 마치 여행을 떠날 때 그 여행의 끝맺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진지한 호기심과 열렬, 동시에 긴장과 두려움 안에서 시작된 여정에서 길렌이 발견한 주관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간 다양한 신화와 그 사회적 맥락에 대한 관심을 다층적으로 발전시켜 온 길렌은 한국의 무속신앙, 그중에서도 ‘굿’에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리서치를 진행했다.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연관 지어가며 적용하고 번역하는 일련의 혼돈스러운 과정을 거쳐 나름의 맥락을 만들어 나갔다. 다방면의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던 어느 날, 길렌은 실제 작두거리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 도살된 새끼

How to Ride the Blade: The Art of Connecting

Jieun Seo (Head of Curatorial Affairs, Coreana Museum of Art)

In May 2023, while visiting London before travelling to Amsterdam, I received an email about a possible collaboration project with Paul Geelen, a Dutch artist participating in the MMCA Residency Changdong. It felt like a significant coincidence, a fascinating alignment of timing and connection. After exchanging initial greetings with Geelen via email, I spent some time in his country and then returned home for my first meeting with the artist during the open studio period of the MMCA Residency Changdong. Amsterdam-based artist Paul Geelen is known for his sculptural practice and spatial interventions based on in-depth research involving objects, raw materials, animal residue, performance, sound and other media. In particular, he has devoted over a decade to working with snails. His studio was meticulously arranged with various photographs, books and objects collected during his research in Korea, including one of his own snails—a living creature. Geelen mentioned that applying for residencies has been his top priority since COVID-19, underlining his eagerness and enthusiasm to maximize his limited time in Korea to expand his awareness and perspective as an artist.

Upon his return to the Netherlands after the residency, Geelen summarized his activities in Korea as “bridging intangible distance”. In other words, his work involved navigating between the local and the distant, the personal and the universal, the natural and the supernatural, the material and the immaterial, and the rational and the emotional. It could also be seen as the artist’s attempt to experience freedom and challenge in a new world, to overcome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global pandemic which has been shaping our lives for the past few years. This essay is about the subjective discoveries that Geelen made on a journey fueled by sincere curiosity and excitement, mixed with nervousness and fear, as when one embarks on a journey without knowing the final destination.

Having developed a multifaceted interest in various mythologies and their social contexts, Geelen undertook extensive research into Korean shamanistic belief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ritual known as gut. Through a series of chaotic processes involving collecting, comparing, relating, adapting, and translating materials, the artist constructed a context. One day, in the midst of his research, he had the opportunity to witness a shaman’s blade dance on a straw cutter known as *jakdu*. The overwhelming sight of the shaman, standing barefoot on the blade with a slaughtered piglet on her shoulder, speaking in a clear and powerful voice, left a profound impression on him. This scene, in which she attempted to connect the realms

돼지를 어깨에 올리고 맨 발로 작두 위에 서서 선명하고 강렬한 목소리를 내며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영매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으며, 황홀경으로 강렬하게 각인됐다. 그리고 이 경험 이후 작가는 '작두'를 매개로 한 인식의 확장을 이어갔는데, 여기서 다행인 것은 작가가 타자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길렌은 단순히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의 굿이나 작두를 타는 행위를 대상화하지 않았고, 많은 문화권에서 타 문화권의 전통을 다루는 데 있어서 표면적으로 접근하고 대상화하여 남용하는 것에 경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소재들이 쉽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들을 인지하였지만, 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작가는 더 깊이 파고들어가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일에 몰두했다. 그 연결은 시각적 유사성이나 사실에 근거하기도 하고, 다소 주관적인 상상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한다.

그는 '작두를 타다'는 한국어 표현을 '(아이스)스케이트를 타다'는 의미를 지닌 영어 표현 "Riding the knives"를 떠올렸고, 작두와 스케이트 날 사이의 시각적 유사성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연결고리들을 찾아냈다. 먼저 한국과 네덜란드 모두 빙속 강국이었던 것. 네덜란드의 유명한 햐토노미(Haptonomy) 전문가이자 많은 스포츠 선수들을 치료한 치료사이기도 한 테드 트루스트(Ted Troost)는 스케이트 선수들에게 "스케이팅 날을 통해 아이스를 느끼라"라고 했고, 작가는 실제 선수들이 빙판을 더 잘 감각하기 위해 말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스케이팅을 탄다는 사실을 떠올린다(한국 선수를 역시 맨발로 스케이팅을 탄다고 한다). 작두거리와 스케이팅 모두 물리적인 전이를 이끌어내는 매개체로서 '신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길렌은 암스테르담의 작업실에서 수천 마리의 달팽이를 기를 정도로 달팽이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 그는 달팽이와 칼날의 연결고리를 발견해낸다. 달팽이는 칼날 위를 아무런 상처나 해를 당하지 않고 기어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이다. 달팽이의 배 밑으로 점액이 계속 분비되는데, 이 점액이 달팽이의 피부와 칼날 사이에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 수 있다. 길렌은 이 발견을 통해 예술가인 자기 자신을 샤먼과 일시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굿은 영어로 '중간적 행위(Mediumistic Practice)'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작가는 한 세계와 또 다른 세계 사이의 다리를 만드는 역할을 자처했으니,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통해 작품을 구현하는 자로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러한 까닭에 백남준 역시 한국의 굿에서 서양의 아방가르드와 유사성을 발견하고 플럭서스와 해프닝의 근간으로 삼았으니 말이다.

2023년 상반기에 진행된 창동레지던시 입주작가전 <빛나는 것들>에서 길렌은 한국에서의 리서치 후반부에

of the living and the dead, was etched in his memory as one of ecstasy. Following this experience, the artist continued to expand his perceptions through the medium of *jakdu*. Fortunately, he avoided falling into the trap of misinterpretation. Rather than simply objectifying Korean gut rituals or the act of riding *jakdu* through the eyes of a foreigner, Geelen maintained an attitude of caution against superficial approaches, objectification, and misuse when dealing with the traditions of other cultures. While recognizing the potential for misunderstanding inherent in the subjects he explored, the artist took the risk of delving deeper to uncover connections. These connections are grounded in visual similarities, factual evidence, or subjective imagination.

From the Korean phrase "riding the *jakdu*," Geelen recalled the English expression "riding the knives," which conveys the meaning of (ice) skating and discovered not only visual similarities between *jakdu* and skate blades but also deeper connections. For one, both Korea and the Netherlands are renowned for their prowess in ice sports. Ted Troost, a distinguished Dutch haptonomy specialist who has treated numerous athletes, advised skaters to "feel the ice through the blades." The artist was reminded of the fact that skaters often skate barefoot to better sense the ice surface. (Korean athletes also skate barefoot.) It's noteworthy that both *jakdu* dancing and skating utilize the body directly as a medium for physical transference. As an artist with a keen interest in snails, who breeds thousands of them in his Amsterdam studio, he also discovered a connection between snails and blades; snails have the unique ability to crawl across blades without getting hurt. This is because snails secrete mucus under their bellies, creating a film between their skin and the blades that prevents injury. Geelen explained that this discovery allowed him, as an artist, to temporarily identify with a shaman. As the term "gut" is commonly translated into English as "mediumistic practice," and the artist took on the role of bridging between different worlds, he undoubtedly possessed persuasive power in bringing forth new artistic inspirations. This is why Nam June Paik also identified similarities between Korean gut and Western avant-garde and used them as the foundation for Fluxus and Happening.

At the MMCA Residency Changdong group exhibition *The Shining Things* held in the first half of 2023, Geelen presented *I AM A CANCER WITH SCORPIO RISING AND A SCORPIO MOON* (2023), featuring a pair of Dutch-made skate blades that he had miraculously discovered during the latter part of his research in Korea. Clearly marked with the inscription "Made in the Netherlands" the blades point towards the air rather than an ice rink, evoking the image of *jakdu*. Such associations and connection can also be observed in his previous works. For example, in *Mothership* (2017-2018), Geelen juxtaposes two Buddha statues (bronze glazed over stoneware), suspended face down and attached to each other at the center of a massive support structure with live, wriggling snails. Inspired by the story that Buddha's ringlets are not short hair but are 108

기적처럼 발견하게 된 네덜란드산 스케이트 날 한 쌍으로 구성된 <나는 상승공과 태음공이 모두 전갈자리인 게자리입니다>(2023)를 선보였다. “MADE IN THE NETHERLAND”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스케이트의 한 쌍의 칼날은 빙판 대신 허공을 향해 있어 작두를 연상시킨다. 그의 과거 작업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연상과 연결짓기를 엿볼 수 있는데, 예컨대 <Mothership>(2017-2018)에서 길렌은 거대한 지지대의 중앙에 서로 바닥이 붙은 채 얼굴이 바닥을 향한 채 매달려 있는 (도자기 위에 청동 글레이즈를 입힌) 부처상과 실제 살아 꿈틀거리는 달팽이들을 병치시켰다. 이는 부처의 짧고 둥근 고리모양의 머리가 사실은 말라버린 108개의 달팽이였다는 일화로부터 시작한 것인데, 이 작품에서 길렌은 삶과 죽음, 자연과 인공, 부드러운 것과 단단한 것, 작은 것과 거대한 것 사이의 대조와 불균형을 의도적으로 일으켜 즉각적인 충동을 시각화했다.

길렌은 본인의 리서치를 정리한 메모들과 함께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방문한 인왕산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사진에서 길렌은 바위 위에서 자신이 만든 (스케이트 날을 활용한) 작은 작두를 두고 맨 발로 서있다. 뽀뽀한 아파트들과 인왕산 자연의 대비가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배경을 뒤로하고, 작가가 한 발을 들어 올려 칼 위에 대려고 하는 듯한 순간이 포착되어 있다. 마치 무당이 작두를 타기 위해 칼 위에 올라가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사면과의 일시적 동일시를 언급했던 작가의 이 퍼포먼스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특별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위한 성스러운 시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에 발을 디딘 예술가의 모습을 나타내는 듯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사진은 작가가 하고픈 이야기의 결론이었다. 그의 작업을 보다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리서치 중에 발견한 칼럼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스케이트는 수많은 신발 가운데에서도 유독 특이한 사물이다.....(중략)..... 발바닥 관점에서 보면, 발은 사실상 쇠로 된 ‘칼날’ 위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들은 ‘칼날 위에서’ 새처럼 높은 도약과 아름답고 정교한 곡선의 예술을 보여주는 셈이다. 보는 이들 ‘혼’을 쏙 빼놓는 칼날 위의 기술은,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무속의 탁월한 예인(藝人)들이 지닌 신기와 비슷한 면이 없지 않다.”¹

dried snails, the work deliberately creates contrasts and imbalances between life and death, the natural and the artificial, the soft and the hard, and the small and the huge, thereby visualising an immediate clash of opposites.

Geelen later emailed me a photograph from his final week in Korea, accompanied by his research notes. In the image, taken on Mt. Inwangsan, a rocky mountain located in the city of Seoul, the artist stands barefoot on a rock beside a small *jakdu* crafted from a skate blade. The juxtaposition of the densely populated apartment buildings against the natural mountain backdrop lends the scene an almost surreal quality. The photograph captures the instant when the artist appears poised to step onto the blade, evoking the imagery of a shaman mounting a *jakdu*. This performance, by an artist who has previously discussed his momentary identification with shamanism, serves as both a sacred endeavour to forge a special connection with the supernatural realm and a portrayal of an artist firmly rooted in reality. Indeed, this single image serves as the culmination of the story he wished to convey. To provide a deeper insight into his artistry, I intend to conclude this essay with a quote extracted from an article I discovered during my research:

*Skates are peculiar objects among sho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le, the foot is essentially standing on a steel ‘blade’. World-renowned figure skaters such as Kim Yuna demonstrate the art of bird-like jumps and beautiful, intricate curves ‘on the blade’. Such skills on the blade that captivate the ‘soul’ of the viewer are not unlike the wondrous power of eminent shamans dancing on jakdu.*¹

¹ 함돈균(문학평론가), [사물의 철학] 스케이트-칼날 위의 집중력, 매일경제, 2014. 2. 21.

¹ Ham Don-gyun (Literary Critic), The Philosophy of Objects “Skating: Concentration on the Blade”, Maeil Business Newspaper, February 21, 2014.



작두타기, 2024

4K 디지털 필름 루프, 종횡비 16:9, 컬러, 사운드, 5'56
± 250 x 445cm

Exercise / Exorcism, 2024

4K digital film loop, aspect ratio 16:9, colour, sound, 5'56
± 250 x 445 cm